

데이비드 A. 데실바 박사 , 히브리서, 4차 세션,

히브리서 3:1-4:13: 불신의 위험

© 2024 데이비드 데실바 및 테드 힐드브란트

히브리서 3:1에서 4:13까지의 다음 주요 부분은 저자가 모세와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하고, 이러한 인물들의 예가 예수, 아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이 일시적인 물질적 영역에서 신적 영역으로의 새로운 출애굽에서 아들을 따르는 사람들로서의 우리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장들에서 우리는 다소 독특한 논증적 흐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3:1에서 6까지 저자는 예수와 천사를 비교하는 것과 관련된 주제에서 예수와 모세를 비교하는 것으로 관심을 옮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것은 저자가 예수를 첫 번째 언약이나 옛 언약의 중재에서 중요한 인물들과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데 있어서 다소 현명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3:7-19에서 저자는 광야 세대나 출애굽 세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긴 권고를 시작합니다. 이는 시편 95편에서 먼저 기억되지만 민수기 14장에서 훨씬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저자는 그 이야기에서 작용하는 신성한 약속과 인간의 불신의 역학을 조사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황에서 작용하는 유사한 역학에 대해 경고하고, 4:1-11에서 광야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것과 같은 불리하고 궁극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4장 12~13절에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따라서 이 말씀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간단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3:1~2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생각해보십시오. 그는 모세가 그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자기를 임명하신 분께 충실하셨습니다.

저자가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그는 먼저 수신자들을 친족 관계 용어인 형제 또는 형제 자매로, 그리고 순수성 용어인 거룩함, 거룩한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이 둘은 모두 1세기의 기독교 정체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동료 기독교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익숙할 수 있으며, 심지어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이 정체성에 대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즉, 서로에 대한 깊은 헌신의 수준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친형제가 최선을 다할 때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 보살핌, 지원, 관심을 서로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함이라는 라벨은 하느님께서 청중 주변에 정해 놓으신 사회적 경계를 미묘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정화되는 혜택을 대신 받음으로써 나머지 인류와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고, 이 여정에서 서로를 지원하는 새로운 친족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늘의 부름의 파트너입니다. 이것은 저자가 그의 설교에 은근히 도입해 온 것입니다.

그는 1:14에서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로서 듣는 자들을 말하고, 2장 10절에서 영광으로 인도되는 아들들과 딸들로서 듣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인해 그들을 기다리는 더 큰 운명을 듣는 자들에게 제시하고,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불가능했을 그 관계로 인해 그들에게 더 큰 영광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3장 1절의 주요 구절에서 저자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촉구합니다.

저자는 여기서도 계속해서 회중의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열려 있는 행동 방침을 숙고할 때 이 하나의 초점으로 그들의 시야를 채웁니다.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그들의 방향을 현재

순간으로 바꿉니다. 그들이 그들의 시선을 단순히 그들의 현재 상황에 산만하게 두면, 기껏해야 빛이 없고 최악의 경우 굴욕적일 뿐이라면, 그들의 내적 추진력의 방향은 그리스도인적 헌신에서 분리되어 이웃의 눈에 재활을 향해 재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시야를 계속 채우신다면, 그들의 초점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 이 위대한 은인에게 지고 있는 의무, 예수의 명예, 그리고 따라서 그들의 모든 행동에서 예수께 돌려야 할 명예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략은 저자가 청중의 목회적 필요를 다루는 수단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는 여기에서 예수를 우리 고백의 사도이자 대제사장으로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도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수에게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자신이 어떻게 사도, 메신저, 사절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말씀이 전달된 사람으로서 예수에게 매우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설교의 서두 문단의 요점이자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초기 권고의 요점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저자가 태양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응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는 저자가 먼저 5장에서, 그리고 7장에서 10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주제입니다. 저자는 3장 2절에서 인용문에서 예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실했던 것처럼 자신을 임명한 자에게 충실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저자는 민수기 12장 7절의 말씀을 재맥락화하여, 그 오래된 본문을 지금 이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대화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러나 그는 민수기 12장 7절에서 핵심어를 하나 빼냈습니다. 즉, 종입니다. 그는 이 비교의 핵심으로 몇 구절에서 그것을 꺼내어 모세가 종으로서의 예수보다 아들로써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12장 6절과 7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더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만 자비롭게 말씀하신 다른 선지자들보다 모세와 더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

민수기의 맥락에서 모세는 나의 온 집안에 충실하거나 위탁받은 사람으로 칭찬받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적절한 비교 지점인데, 저자가 설교를 시작했을 때, 아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적인 징후만 보여준 선지자들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충실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는 어떤 식으로든 모세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고대 연설에서의 비교는 종종 연설의 주제를 격상시키는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연설자는 자신이 칭찬하는 주제를 비교할 고귀한 인물을 선택했고, 모세는 전통적으로 신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으로 유명합니다.

모세는 또한 백성의 중재자로 유명하며, 모세가 백성과 신 사이에 기본적으로 몸을 던져 그들을 대신하여 신의 자비를 간청했던 사례를 기억한다면 그는 종종 성공적인 중재자입니다. 신은 또한 모세가 오경에서 여러 차례 한 말씀을 강화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주요 요점을 강화하는 데 함께 작용합니다. 즉, 예수는 신의 사절로서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메시지는 경청되어야 하며 예수는 신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두는 사도이자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메신저이자 중개자로서의 예수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비교의 출발점은 두 인물이 하나님께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를 사절이자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자에게, 모세는 자신의 자격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비유가 전개되면서, 우리는 저자가 이 경우에 예수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 도입한 차별화의 요점을 볼 것입니다. 즉, 단순히 집안의 하인이 아니라 집안의 아들로써 우월한 지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집안의 궁극적인 머리인 하나님과 더 가까운 지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저자는 3절에서 아들에게 속한 더 큰 영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록한 대로, 이 사람은 모세보다 더 큰 영예를 받을 만하니, 집을 짓는 자가 집보다 더 큰 영예를 받는 것과 같으니라. 모든 집은 누군가에 의해 세워지나, 모든 것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이니라. 그렇다, 모세는 영예를 받지만, 아들은 더욱 영예를 받는다.

이 요점을 밝히기 위해 그는 우리에게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비유를 구성합니다. 예수는 모세에게 건축자, 집, 그리고 모든 창조물에 대한 신과 같습니다. 이 비유는 아마도 창조에서 아들의 역할에 대한 공통된 신념 때문에 저자와 청중에게 통할 것입니다.

아들로서 예수께서는 집을 짓는 데 참여하셨는데, 창조물 전체가 아니라 모세가 섬겼던 모든 시대와 장소의 신실한 자들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아들이로서의 더 큰 존재와 공동 창조자로서 가정에서 더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들은 더 큰 영예를 누립니다. 그런 다음 저자가 계속 말하듯이, 한편으로 모세는 나중에 말씀하실 일들에 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 종으로서 그의 온 집에서 충실했지만, 그리스도는 그의 집의 아들이 충실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함과 우리의 소망의 자랑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이 문단의 앞부분에서 저자가 소개하지 않은 민수기 12:7의 용어는 종입니다. 민수기에서 우리는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서 신실하니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저자는 이 지점까지 미루어 집안의 종인 모세와 집안의 아들인 예수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 집의 상속자로서 예수는 집안의 지위에 서 있고, 따라서 집안의 노예나 하인보다 더 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집을 구성한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이를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그들 자신의 충실함의 덕분으로 누리는 영예, 즉 하나님의 집안에 입양되어 그들의 형 예수의 영광과 존귀에 참여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또한 이 영예와 그에 따르는 소망, 즉 영광의 소망을 계속 누리는 조건도 소개합니다. 그는 우리가 담대함과 소망의 자랑을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썼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담대함은 그리스어 단어인 파레시아를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마도 그의 설교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끌어왔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을 촉구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이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 침묵하도록 겁먹거나, 그리스도교 집단을 버리도록 복종하도록 겁먹는 것보다 이웃에 대한 담대함을 촉구합니다. 파레시아는 그리스 정치 담론에서 시민들이 도시에서 누린 솔직한 말이나 언론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폭군이 도시를 정복하고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려 할 때 무엇이 걸려 있었는가? 시민들은 파레시아를 유지하고 본래의 자유에서 폭군에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겁먹고 복종하여 폭군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여 일시적인 행복을 유지할 것인가? 저자는 이를 사회가 폭군의 역할을 맡은 수신자의 상황에 적용할 것이다. 그들은 사회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괴롭히려는 시도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에 대한 그들의 담대한 표현을 억누르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이 구절에도 그리스어 단어가 나온다.

이 단어는 명예를 주장하거나 자랑함을 나타내며, 이웃이 명예에 대해 반대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교제가 참으로 귀중한 명예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으며, 이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상기시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한 것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연스럽게 고려하게 하고, 광야 세대의 실패를 부정적인 예로 발전시켜 자신의 수신자들이 현재 상황에서 모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저자는 시편 95편을 통해 이 예와 권고에 접근합니다.

시편의 후반부는 광야 세대의 실패를 언급하며, 이미 그들의 모범을 근거로 삼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잘 반응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할 때와 같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과 같이,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40년 동안 내 행위를 보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노하여, 그들이 항상 마음으로 그릇 행하며, 내 길을 알지 못하므로,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였노니,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95편의 본문을 제시하는 방식과 우리가 영어 성경의 구약성경에서 시편 95편을 읽는 방식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성경의 영어 번역자들이 구약성경을 히브리어 본문에서 직접 번역한 반면, 히브리서 저자는 기원전 2세기나 3세기부터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칠십인역에서 발견되는 시편 본문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어 번역본이 지중해 동부 전역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구약성경을 알게 된 주요 형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실제로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께 대한 응답에서 넘어진 세 가지 다른 사건을 언급합니다.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랑하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했던 메리바의 사건은 출애굽기 17:1-7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민수기 20장 2-13절에서 읽을 수 있듯이, 그들이 물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두 번째로 불평했던 마사의 사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가지 않고 반역한 사건이 있습니다.

메리바라는 지명을 평범한 단어, 괴로움, 시험으로 번역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처음 두 사건을 감추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 전체는 이제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단일 에피소드를 반영한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의 그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청취자에게 친숙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문턱에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카나안을 차지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기 위해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았고,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그 정탐꾼 중 10명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강했습니다.

그들의 도시들은 잘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탐꾼 두 명, 요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만한 시기였고, 하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다수의 보고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막으로 데려와서 그곳에서 죽이려 한다고 비난했고, 그들은 이 길로 그들을 인도한 모세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이집트로 돌아가 파라오와 어떤 종류의 평화를 협상하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노골적인 불신의 행위로 해석하셨고, 그분을 모독하셨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악한 동기로 비난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로 이 세대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그 세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고, 반역자들의 자녀들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14:30에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며, 시편 95편 11절이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이 맹세입니다. 그래서 나는 분노하여 맹세로 선언하였노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설교로 돌아가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시편 95편의 본문을 통해 민수기 14장의 이야기에 접근함으로써 몇 가지 필수적이고 전략적인 요소를 소개합니다.

시편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그에 따라 걷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마음을

굳게 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아들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직접적인 권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성령과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에 대해 마음을 굳게 하기보다는 설교를 듣는 동안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며, 이웃의 수용 과 존중을 얻기 위해,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을 위해 마음을 굳게 합니다. 이 시편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지 않는 방법과, 광야 세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것을 계획하신 혜택을 잃고 결국 그들 스스로의 최악의 두려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인지에 대한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40년 동안 온 세대가 실제로 사막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을 낭송한 후, 저자는 즉시 민수기 14장의 에피소드, 즉 출애굽 세대의 반역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의 청중의 상황에 적용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불신의 마음이 없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십시오. 이는 여러분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로 강박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실체의 처음 부분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 때와 같이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저자는 이 권고를 시작하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수형 명령으로 말합니다. 너희 모두 조심하라. 너희 중 누구라도 불신의 사악한 마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인내는 많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저자가 회중이 제자도에서 개인의 인내를 지지하는 강력한 사회적 기반이 되도록 격려하기 위해 보여주는 지속적인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는 또한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지금 그들의 주된 소속, 지금 그들의 주된 가족은

서로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중심으로 함께 모으신 가족입니다.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불신의 사악한 마음의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자는 잘 알려진 문화적, 도덕적 주제를 끌어내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미덕의 부족으로 다른 사람의 미덕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신뢰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도덕적 실패에 대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신에 대한 불신의 마음은 사악함의 마음, 사악함 그 자체입니다. 저자는 대신 매일 서로를 격려하라고 경고하면서 개인적 헌신에 대한 사회적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에서 또 다른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이라고 불리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편 인용문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마음을 굳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자가 사용하는 방식, 오늘이라고 불리는 한, 저자는 듣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과 함께 온 종말론적 기대를 미묘하게 상기시킵니다.

항상 오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날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지막 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듣는 사람들을 속이고 강압하게 만들려고 위협하는 이 죄의 작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특정한 환경에서 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서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끌어내는 충동이나 음성입니다. 이 삶이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것들로 자신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 아들에 대한 감사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멈추려는 충동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경우, 이웃의 명예와 존경을 다시 한 번 얻고, 그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재구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것은 저자가 그러한 충동을 색칠하는 전략적 방법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동등하게 잠재적인 대안, 두 가지 동등하게 가치 있는 대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떨어진 이웃이나 가족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집단에서 이탈하려는 충동은 사실 우리 안에서 죄의 속임수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힘이 우리에게 유혹적인 마법을 부리기 위해 사용하는 목소리는 무엇이든.

저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체의 첫 부분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었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3:14의 이 말은 저자가 방금 3:6에서 한 말을 즉시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담대함과 우리의 소망의 자랑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아들의 동역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지위는 조건이 있는 지위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전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여정의 시작이 아니라 여정에서의 인내와 여정의 끝에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상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은 저자가 듣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된 구원, 즉 하나님의 영원한 고향에 들어가기로 바란다면 그들은 계속 나아가야 하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3:16-19에서 저자는 민수기 14장의 광야 세대 이야기의 일부 세부 사항을 강조하는 일련의 질문과 답변을 구성합니다. 듣고 반역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떠난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분노하신 자들은 누구입니까? 죄를 지은 자들, 사막에 몸이 쓰러진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불순종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누구에 대해 그가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불신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봅니다. 저자는 민수기 14장 이야기에서 언어를 엮어 그 연결을 굳건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광야 세대의 두 가지 주요 결함을 강조했는데, 이는 그의 회중에서도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마주칠 저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11에서 불평하시듯이,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습니까? 신뢰와 불신은 후원자-고객 관계에 대한 담론의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고객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후원자를 신뢰하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후원자는 고객이 관계의 맥락에서 행동하는 방식으로 후원자에게 불명예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저자는 이 두 가지를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서 피해야 할 주요 악덕으로 강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않아야 하고, 같은 약속에 따라 걷는 데 순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을 청중과 그들의 상황에 대한 서사의 틀로 사용합니다. 그는 그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동일한 문턱에 서 있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는 민수기 14장을 그들의 상황에 대한 비유를 제시하는 가장 적절한 성경적 이야기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문턱에서 부족함을 느낄 것인가, 아니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들은 불순종과 불신에 대한 충동을 극복하고 그들의 영적 조상들이 실패했던 곳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히브리서 4장에서 설교자는 수신자들에게 광야 세대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서 있는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는 그들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시작하며, 실제로 두려워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 동안 여러분 중에 누군가 부족함을 생각할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호소하는 것과 같은 감정에 대한 호소는 고대 설득 기술의 일반적인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고대 연설과 설교는 단순히 지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포함한 청취자의 전체 인격을 포함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 교과서에서

인식하고 썼듯이, 사람들은 현재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저자는 청중들이 이웃이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며, 예수님에 대한 헌신 때문에 견뎌야 할 일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는 청중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느 순간 전능자와의 관계에서 이탈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저자에게는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소유하겠다는 약속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자는 4장이 전개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증명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본질적으로 시편 95편 11절의 맹세, 내가 진노하여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맹세가 민수기 14장 30절의 맹세와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너희 중 한 사람도 내가 너희를 정착시키겠다고 맹세한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맹세는 구체적으로 가나안을 언급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시편 95장 11절의 맹세가 다른 약속의 땅, 즉 눈에 보이는 하늘 너머 하늘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거처의 땅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듣는 사람의 상황과 광야 세대가 이탈한 순간의 비유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이 받은 것과 똑같은 좋은 소식을 받았지만, 보고의 말씀은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듣는 자나 경청하는 자와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민수기 14장의 이야기의 요소들, 특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에 대해 좋은 보고를 한 것이 고대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불신을 불러일으켰던 부분을 계속해서 회상합니다. 광야 세대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준비가 된 자, 즉 여호수아와 갈렙과 신뢰로 연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정하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온 좋은 소식이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저자가 여기서 제기하는 도전은 암묵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좋은 보고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뢰를 얻을까요? 따라서 그것은 우리를 이 좋은 소식이나 이 좋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저자는 다음 구절에서 듣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실제로 신뢰로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라고 밝히라고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는 듣는 자들이 그 묘사에서 자신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 신뢰를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들은 약속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고 유익하게 행해질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신을 온전히 투자할 것입니다.

설교가 여기서부터 진행되면서 저자는 성경을 근거로 다소 복잡한 주장에 들어가 하나님의 안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식, 즉 안식에 들어가겠다는 이 약속이 여전히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자는 그의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가 말했듯이,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였으니, 비록 그의 일이 세상 창조 때부터 존재하였더라도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시편 95편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이는 설교자를 창세기 2장 2절로 이끕니다. 그는 어딘가에서 일곱째 날에 관해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랍비적 또는 실제로 랍비 이전의 유대교적 해석 전략이 작동하는 것을 봅니다. 즉, 한 구절의 키워드가 해석자를 다른 구절의 동일한 키워드로 이끕니다. 여기서 그 키워드는 휴식입니다. 그런 다음 이 두 구절을 사용하여 서로를 해석합니다.

저자가 함께 작용하는 이 두 본문에서 끌어낸 의미는 인간이 카나안의 지리적 영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처, 창조 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곳, 창조 너머의 영역에 있는 곳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여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편 본문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청중에게 초대를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은 이 새로운 세대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그렇게 하여 출애굽 세대의 운명을 피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어떤 사람들이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남아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저자는 성경의 발언 연대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자연스럽게 다윗 왕과 연결시키는 시편 기자가 히브리인의 역사적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 수 세기 후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실은 저자가 역사적 이스라엘의 관심사였던 그 작은 지리적 땅을 넘어선 훨씬 더 큰 안식처, 약속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말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남았고, 처음 사람들, 즉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한 이전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날을 정하셨습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날 후에 또 다른 안식에 관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 구절들은 반대의 주장을 사용합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감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을 주었다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을 굳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하는 요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자는 히브리서 4:9에서 안식일의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저자는 미래의 안식이 여전히 신실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립했다고 믿고, 이제 그는 이 미래의 안식을 창조의 마무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에서 쉬신 하나님의 영역과 동일시하는 것과 일치하여 그것을 안식일의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저자는 이 구절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일에서 쉬신 것과 같이 자기의 모든 일에서 쉬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진술로 읽혀졌지만, 저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매우 특정한 사람, 즉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승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의 영역에 들어간 유일한 개인인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또한 실제로 자신의 일에서 쉬셨는데, 저자는 10장 11절에서 13절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매일 서서 동일한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 예수는 죄를 위해 한 번 제사를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판이 될 때까지 남은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은 성취되었으므로, 그는 불완전한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처럼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7-4, 11에서 말하는 안식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관한 어떤 것과도 동일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선구자로 가신 곳이며, 우리도 창조된 무상한 영역을 제거하는 데 들어갈 곳입니다. 이는 저자가 청중에게 광야 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 바라는 소망입니다. 4:11~13에서 저자는 이제 3:1에서 시작된 이 설교의 두 번째 주요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이 부분은 저자가 모세와 출애굽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응답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모델로 집중함으로써 일관성을 얻었습니다.

이 결론적인 호소에서 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하며, 여러분 중 누구도 같은 불순종의 패턴에 빠지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저자는 따라서 민수기 14장의 이야기가 수신자 자신의 상황을 보는 해석적 틀을 어떻게 제공했는지에 근거하여 청중의 초점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들이 무엇보다도 신성한 영역에 들어가 파괴될 운명인 이

일시적인 물질적 창조물에서 문턱을 넘어 하나님의 현존의 영원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데 야망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이것이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광야 세대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의 지리적 문턱을 넘는 것을 방해한 불신과 불순종의 결함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불순종 패턴은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복수형 권고 가정법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합니다.

그리고 목적 절에서 단수 동사를 가진 단수 주어로 전환하여, 여러분 중 누구도 다시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끝까지 견디려면 필요한 투자를 강조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설교에서 서로를 돌보고 조심하라는 부름을 반복해서 받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일 수 있는 두 구절에 도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외우는 데 별로 재능이 없었지만, 일요 학교에서 외우라고 권유받은 몇 안 되는 구절 중 하나는 사실 히브리서 4:12-13 이었는데, 저는 항상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으며 양날 가진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분별하고 마음의 욕망과 생각을 판단합니다. 그분 앞에 숨은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다 벌거벗은 채로 목이 드러난 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계산 대상입니다.

이 유명한 구절들은 저자가 4장 11절에서 선포한 사고방식과 행동 방침을 채택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됩니다.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같은 불순종의 본보기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이 구절들은 빠지는 위험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은 실제로 일요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암기할 때 믿게 한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설교에서 주제가 되었습니다. 설교의 서두 네 구절에서, 다시 2장 1절에서 4절, 설교의

서두 경고에서, 그리고 시편 95편 7절의 인용에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그리고 3장 7절에서 4장 7절까지 자주 강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은 항상 그 말씀에 적절한 주의와 반응을 기울이지 못할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그 패턴에 속합니다. 그것은 4:1에서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도움과 아직 하나님에게서 받을 약속에 감사하는 순종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호소를 강조합니다. 여기에 통합된 이미지, 특히 4:13에 통합된 이미지는 피고인이 판사 앞에 끌려가는 이미지인데, 판사의 눈은 영혼과 따라서 이 피고인의 죄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수신자의 취약성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꿰뚫는 조사 앞에서 이렇게 그들의 주의를 끌게 됩니다. 나아가, 원문의 그리스어 분사는 보통 단순히 드러난 또는 노출된 것으로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사형 집행인의 칼날에 목이 노출된 사형수를 훨씬 더 완전하게 지칭합니다. 그리스어를 아는 사람은 그 그리스어 분사에서 *trachea*라는 단어의 대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을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목을 조르고, 양날의 검보다 더 날카로운 말씀의 일격을 기다리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 청중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며, 이미 몇몇 청중이 기독교 집단에 대한 헌신에서 물러서는 것이 이롭다고 확신하게 한 이웃의 거부의 위험이 아니라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3:1~4:13은 저자가 청중을 그들 가운데서 육신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충실함의 반응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수사적 전략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달성합니다. 한 가지로, 그는 이 전체 자료 블록에서 구절을 반복하여, 나의 안식 에 들어가 거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사용하여 청중에게 신성한 영역과 영원한 유산으로 나아가는 이 움직임이 그들의 주의를 가장 충만히 차지해야 할 것이라고 각인시켰습니다.

이 구절이 이 구절에서 적어도 여덟 번이나 반복된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추구에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지를 텍스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청중들에게 현재 순간의 기회와 위험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기회는 하나님의 안식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위험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자로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곳으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청중이 추구할 수 있는 기회와 피해야 할 위험에 대한 다른 잠재적인 동일시를 대체하기 위해 기회와 위험을 신중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미 기독교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러 나오지 않은 몇몇 회중 구성원은 지금의 기회는 이웃 사회에서 우리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고, 피해야 할 위험은 우리 도시 한가운데서 자란 이 외국 미신에 대한 우리의 헌신 때문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나머지를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저자가 그 순간의 실제 도전에 대한 재구성을 받아들이는 한,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기독교 집단, 그 증거, 그 실천에 대한 헌신에서 계속 살거나 그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부분은 또한 모든 세대의 기독교인에게 도전하며, 우리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경화증의 위험, 저자가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의 완고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강직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교활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오는 데 대한 초기의 열정 이후에 우리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광고와 정치적 선전의 목소리와 같은 비인격적인 목소리 등 주변의 목소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이 삶의 것들을 획득하고 즐기는 것에 대한 새로운 관심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로 악할 수도 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데서 산만하게 하는 한, 엄청난 위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의제를 성취하고, 우리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 새롭게 헌신할 때 발생하는 강박함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것이 우리 영혼에 큰 위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생히 알고 있어야 하며,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하는 이 과정에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응답하고 영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피하려면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죄는 기만적입니다.

저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속은 사람은 종종 그 속임에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신에게서 온 것이 아닌 충동과 논리의 지배를 어떻게 받았는지 보고 그 사람이 그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종교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특히 서구 사회가 선전하는 것과는 반대로요.

서로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충실한 실천에 확고함을 투자하고 유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의 일부입니다. 저자는 또한 우리가 지금과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녀야 할 책임을 상기시켜 주는데, 이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다른 모든 책임보다 우선합니다.

여기서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교훈을 언급하는데, 우리의 궁극적 회계는 하나님 앞에서이며, 그 앞에는 아무도 숨김이 없고, 그 앞에는 모든 사람이 목이 드러난 채 드러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단어는 실제로 위협을 가하지만, 또한 신자들에게 해방의 말씀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회계해야 할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본문은 또한 다른 기준으로 행동하는 많은 하급 재판관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부모나 세속적인 동료들의 기준이나 기대가 아니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배운 편견도 아니고, 광고와 쇼핑물에서 홍보하는 생활 수준도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오직 신의 가치와 비전뿐입니다. 우리의

생각, 발걸음, 야망을 정리하여 우리의 궁극적인 계산 대상인 그분을
기쁘게 하는 데 집중한다면, 우리는 떠내려가는 경향이 줄어듭니다.